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 2017. 10. 25.(수) / 총 2매(본문1, 참고1)	담당 부서 도로투자지원과
담당 부서	도로투자지원과	담당 자 · 과장 방윤석, 사무관 박병익, 주무관 박상철 · ☎ (044) 201-3897, 3901, 3896	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건설비 없이 통행료 꿀꺽?...서원주 나들목 논란

서원주IC 설치로 인한 추가 통행료 수입은 미 발생...

운영비는 전문용역을 통해 검증 및 조정 검토

- 서원주IC는 경제성 부족*으로 설치계획이 없었으나, 원주시가 제2영동(주)와 운영비 부담 등을 조건으로 별도 협약을 체결(12.8월)** 하고 설치하였습니다.

* 당초 B/C : 0.8로 광주-원주 고속도로 본 사업에 미포함

** 원주시가 서원주 IC 건설비 일부(50% 국고보조) 및 운영비 전액 부담하는 조건

- 통행료는 서원주IC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광주-원주 본선 이용에 대한 사용료이며, 서원주IC 설치로 인해 추가 통행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- '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('17.2.17)'에 서원주IC 운영비는 최초 2년간('18년까지) 총 8억원*을 원주시가 부담하고,

* 현재 서원주IC 운영은 법인이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, 원주시는 인건비, 경비, 전력비 등에 대한 최소운영비만 부담하고 있음

- '19년도 이후 서원주IC 운영비는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르기로 한 협약에 의해 서원주IC 설치로 인한 실제 교통량 증감 분석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여부를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KBS뉴스), 10.25 >

◆ 건설비 없이 통행료 꿀꺽?...서원주 나들목 논란

- 건설비를 들이지 않은 민간회사가 통행료까지 챙기는 것은 부당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투자지원과 박병익 사무관(☎ 044-201-39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